

## 무정한 고향

### Cruel Hometown

강물이 무심하게 흐르며 불규칙한 물줄기를 낳듯이 내 고향의 풍경도 하염없이 거친 강가로 나서는 세월이다. 논두렁과 밭이랑을 타고 넘으며 울고 웃던 사람들은 간 곳이 없고 다 쓰러져가는 집과 잡초로 문혀 가는 고향은 마치 타향처럼 나를 향해 달려든다. 허리가 꼳꼳했던 장년의 사람들은 어느새 등이 굽어 허리 너머로 둥근달이 보이고, 스치는 바람은 나를 아는 듯 거칠게 내 옷자락을 잡아끈다.

연휴를 맞아 오랜만에 찾아간 고향. 고향집의 초라한 모습처럼 어머니의 육신도 날이 갈수록 아위어만 간다. 삶의 고단함으로 굽은 어깨에는 애잔하고 쓸쓸한 무게에 눌러 진득한 외로움이 덕지덕지 묻어난다. 내가 이 고향에서 태어난 것이 언제이던가. 아무리 그 날을 기억하려 해도 시간은 앞으로만 내달릴 뿐 되돌아 흐르지 않는다. 눈은 서글픈 현재를 바라보고 마음은 옛 시절의 그림자를 찾아 더듬으며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아내려 허둥댄다.

무엇하러 내가 또 다시 고향을 찾아왔을까, 나를 반겨 주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고향을, 유정의 공간은 사라지고 무정만이 성장하는 황량한 곳, 살갑게 다가오던 지난 시절의 따스한 기운은 더 이상 마을에서 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 해도 고향은 늘 유정으로 충만한 세상하기를 기대했건만, 세월이 빗겨만 가는 언덕으로 미끄러져만 간다.

비틀어지고 아위어만 가는 어머니의 다리, 그 연약한 다리로 누구를 낳고 누구를 기른 것인가. 모진 세월이 다리에 초췌한 흠집과 한을 남기며 쓸쓸하게 상처만 키웠다. 고향마을 선산에는 내 낳을 적 나무가 아직도 성성하건만, 나는 왜 이리 무정한 세상으로 나와 고독하게 타관을 떠돌고 있을까, 고향을 찾아와도 보이는 것은 슬픔과 외로움 뿐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고향이 그저 멀게만 느껴진다.

무슨 일인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는 푸념을 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한. 이제는 자식들 뒷전으로 물러나 바라만 보아도 될 일을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일은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손에서 놓으면 놓을수록 빈손이 되어가는 것이거늘 무엇이랴도 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신세, 사랑이 무엇인지 고향이 무엇인지 자식이 무엇인지 도무지 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시냇물은 졸졸졸 마을 길 옆을 따라 방향을 잃은 채 흘러가고 바람에 쓰러질 듯한 늙은 느티나무의 거친 울음소리, 그리고 부모를 따라와 조잘거리는 어린 아기의 유정한 소리, 오랜만에 다정한 유정의 공간을 만났건만 이 모두가 며칠도 머무르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고향이다. 내 고향은 도대체 어디인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곳을 찾아왔건만 그 모든 것이 무정으로만 다가오는 낯선 만남의 연속이다.

산에서 마을로 내리달리는 산들바람과 마을에서 산으로 밀려가는 사람들의 목소리, 고향은 사람을 품고자 하나 산 사람들

고향! 언제나 이 말에는 깊은 유정의 샘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고향에는 고독한 무정만이 밀려드는 세상이다.  
 누렇게 검은 흙은 세월에 휩쓸려 속살의 치부를 드러내고,  
 옛가락 같이 구부러진 오솔길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시멘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옛 전설을 속삭인다.  
 고향의 애잔한 삶의 목소리들은 도시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삶에 지쳐 고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허공으로 받아들인다.  
 이곳이 차마 잊을 수 없는 내 고향이런가.  
 고향이라는 강물에 한줌의 흙이라도 뿌리고 싶은 이 마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달래며 고향에서 유정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은 모두가 고향을 배척하려고만 한다. 무엇인가를 등지면 또 다른 것을 가슴에 안아야 하는 것이 사람살이의 이치이거늘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요 가슴에 안는다고 안아지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이라지 않는가. 버리고 안는 것을 함께 취하게 될 때 유정한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향이 무엇인지, 세월이 지날수록 유정에서 무정으로 가는 거리만 멀어지는 고향. 빙 둘러싼 산자락이 가끔은 나를 유혹한다지만 산은 산일 뿐 내 마음의 그리움이라는 바람은 어찌지를 못한다. 내 고향이 맑은 유리성으로 남아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무리일까. 유정이 사라져가는 공간이지만 그나마 무정이라도 느끼며 만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만 하는 것인가.

산 사람은 도시의 가로등 불빛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이승을 떠난 사람은 고향의 달빛이 그리워 다시 찾아오는 고향. 번성했던 시절의 삶은 산자락에서나 만나고, 쓸쓸함에 고독의 잔을 기울이는 정경은 초라한 마을에서나 맛본다. 세월이 깊어갈수록 삶의 거친 욕망만 늘어간다. 그리워도 그리워할 수 없는 무정한 고향, 문명화의 바람에 밀려 고향의 풀냄새를 점점 잃어만 가는 무정한 세월.

고목에서 자라던 희망의 새싹은 고사된 지 이미 오래고, 햇빛은 나무껍질에는 고독의 냄새만 깊어 간다. 내 삶의 바탕은 무엇일까, 고향이라는 무대는 삶의 무대가 아닌 연극의 무대처럼 다가온다. 내게 불어왔던 바람과 꿈을 실어 나르던 구름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무정에서 유정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단한 삶,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정거장 같은 고향이라지만 언제나 그 곳에는 나를 키우는 무정한 고향이 나를 대신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리 반가운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의 진정한 이유는 내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고향의 옛터전은 그런 만남과 고독과 삶의 이유를 진정으로 가르쳐주는 인생의 스승이다. 비록 유정에서 무정으로 변해가는 험한 세상이지만 그 무정한 공간에서나마 유정한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은 내 삶의 옛 상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고향! 언제나 이 말에는 깊은 유정의 샘물이 가득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만나는 고향에는 고독한 무정만이 밀려드는 세상이다. 누렇게 고 검은 흙은 세월에 휩쓸려 속살의 치부를 드러내고, 옛가락 같이 구부러진 오솔길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린 채 시멘트에게 자리를 내어 주고 옛 전설을 속삭인다. 고향의 애잔한 삶의 목소리들은 도시로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삶에 지쳐 고향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허공으로 받아들인다. 이곳이 차마 잊을 수 없는 내 고향이런가. 고향이라는 강물에 한줌의 흙이라도 뿌리고 싶은 이 마음, 무엇으로 내 마음을 달래며 고향에서 유정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아버지가 그리워도 만날 수 없고, 나의 지나간 유년을 만나고 싶어도 사라진 빈 들녘. 산자락으로 넘어가는 흰 구름에게 이내 마음을 전하지만 구름은 말이 없다. 앞산에서 쪼르륵 날아와 잃어버린 소식을 묻고 온 텃새들과 바람을 타고 시절을 수런거리는 나무들에게 세월이 지쳐가는 내 마음의 무정한 상념이나 전해주고 싶다. ■